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4월 19일(주일) 제1045호



사진설명

장애인부서 총출동 ... 특순, 작품 전시, 교사 모집도

오늘은 장애인주일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뜻 깊은 날이다. 장애인주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지적장애인들이 구성된 사랑챌버가 특순(1부)을 선보이고 장애아동을 위한 예배공동체 사랑부 부모들이 위심공연(2부)을 한다. 온사랑합창단(3부)의 공연과 강동 캠퍼스 배성연 형제의 피아노 연주(4부)도 이어진다. 서빙고 선교관 커피숍 벽면에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주중 프로그램 모자이크플러스의 작품 20점이 전시된다. 이천만광장에서는 장애청년들이 직접 만든 수제비누와 작품을 판매한다.

장애인부서 교사모집을 위한 부스도 설치된다. 양재 사랑부는 오늘 23부 예배에서 특순으로 밤별연주를 선보인다. 원형광장에서는 자선장이 열린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3부 예배에서 사랑부 학생과 부모, 교사가 함께 특순을 선보인다. <관련기사4-5면>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행복드림 콘서트 참가자 모집!

65세 이상 부모님 위한 맞춤형도집회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 초청 맞춤형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는 5월 18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방승인, 오미희, 개그맨 이흥렬, 퓨전 국악팀 가야랑, 실버합창단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이재훈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전도대상자의 손

자녀들이 참여하는 위심공연도 준비 중이다. 5세~고등학생 손자녀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주일통합데스크에서 하거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부모 초청 맞춤형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는 네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요청자 모임이다. 4월 27일과 5월 11일 저녁 7시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기

도모임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2단계는 집회다. 5월 18일 오후 6시 서빙고 본당에서 막 오른다. 3단계는 후속 프로그램이다. 6월 6일 집회참석자 가족들과 3대가 함께하는 가차여행을 간다. 4단계는 세례식이다. 6월 8일, 10일, 15일에 세례 교육을 받고, 6월 17일에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집회에 참석자들에게 시니어 아카데미도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010-8096-5714, 02-3215-3214

NGO 더멋진세상, 4월 26일 정기후원 약정행사

NGO 더멋진세상이 4월 26일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한다.

이번 약정행사는 4월 26일 국내 10개 캠퍼스 모든 예배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해외비전교회는 비전헌금을 봉헌해 NGO 더멋진세상에 전달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12월 창립되었다. 그동안 일본과 터키 지진 피해지역 복구사업,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더멋진마을 조성 사업 등으로 지구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

력을 끼쳐왔다. 올해도 재난과 가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세네갈, 르완다, 기니비사우, 모로코 등지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이어간다. 아프리카와 네팔 어린이 생명 살리기 운동도 마찬가지다. 정부, 기업 지원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의료진 초청 연수 사업과 해외 환우 초청 치료사업도 진행 중이다.



사단법인(대한민국 외교부)



더멋진 세상

정기후원 행사를 앞두고
NGO 더멋진세상 CEO 김광동 장로와 함께

“여러분의 후원이 기적을 만듭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12월 창립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재난구호사업,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더멋진마을 조성 사업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들을 찾아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16개국에서 5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4월 26일 정기후원 행사를 앞두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 CEO 김광동 장로를 만났다. 그는 NGO 더멋진세상의 활약에 대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혔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의 후원과 기도가 오늘의 NGO 더멋진세상이 있게 했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NGO 더멋진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故하용조 목사님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NGO 사역을 제안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제는 돌려줘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직원도 사무실도 예산도 없었거든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달랐어요. 일단 시작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 힘으로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이웃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고 있지요. 학교가 없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배움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요.”

활약이 대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재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주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영적인 양식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소홀할 수 없지요. 그것이 NGO 더멋진세상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런 점에 주목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 목표는 자립입니다. 보건, 의료, 식량 문제부터 소득증대 사업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세네갈과 르완다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얀마와 인도에서도 더멋진마을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프리카 가나비사우의 한 마을을 찾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은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고 동물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숙소로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곳에 왔잖니. 너는 나의 동역자다.’”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NGO 더멋진세상이 활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도님들의 후원 덕분입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원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기도 덕분에 NGO 더멋진세상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

4월 26일 NGO 더멋진세상이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합니다. 만 명의 후원자가 모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주시고 여러분의 후원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NGO 더멋진세상 활약상

그들은 네팔의 미래이자 하나님의 미래다

네팔에는 HIV/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로 고통 받고, 외면 받는 사람들이 많다. 치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인지 HIV 보건자 및 AIDS 환자들에 대한 지원과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여전히 HIV/AIDS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도 보건자 및 환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그들을 품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HIV/AIDS 아동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NGO 더멋진세상은 네팔 극서부 지역 끼이탈리를 찾았다. 끼이탈리 지역 중에서도 HIV/AIDS 아동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고다워리 주변 지역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들었다.

그들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주변의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었다. 두려움에 자신이 HIV/AIDS 환자라는 것을 감추고 있었다. 어떤 경우는 가족으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었다. 상처투성이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NGO 더멋진세상을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었다.

HIV/AIDS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꾸준한 건강관리다. HIV 보건자는 아직 발병 상태는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약하다.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HIV 보건 상태에서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AIDS 단계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각종 합병증으로 고통 받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고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빈국 중 하나인 네팔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NGO 더멋진세상은 매달 일정량의 식량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주로 렌틸콩, 달걀, 고기 등을 전달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네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 자주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건강한 육체를 가질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꿈꿀 수 있도록 학업 지원 프로그램



네팔 고다워리에서 섬기고 있는 더멋진세상 봉사자 김대승 청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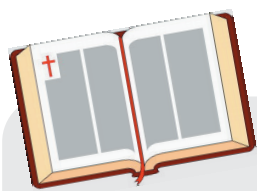
도 실시하고 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학업에 필요한 물품과 생활 환경 개선도 돕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협력 선교사님과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아동들이 변하고, 아동들이 변하면 가족들도 변하기 때문이다.

매달 아이들을 방문하는 일은 여러 사역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현지인 아모스 타파 목사님과 사무엘 가왈

리 형제의 도움으로 HIV/AIDS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원 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각 가정을 방문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변화를 살피면서 그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다. 만날 때마다 아이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들은 네팔의 미래이자 하나님의 미래다. 이곳이 아동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도 그 땅을 밟고 아이들을 만날 것이다.

/ 김대승 해외봉사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을 본 사람들

출 24:1~11

“경배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나 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만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범위 내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을 때에는 두려워 떨며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에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합해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동시에 보는 것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9-11절).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다고 하지 않고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보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나타나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응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경향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경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1-2절).

하나님은 모세와 리더십들에게 올라와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더 가까이 오도록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보자 모세만 더 가까이 오도록 했고, 다른 리더십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주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존재 자체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 의지와 생각 등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배반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경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

입니다. 바로 신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와 권한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 한 가지 법칙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실에 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뒤집어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고, 능력도 있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배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시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인간은 주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를 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경배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사람들로부터 경배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경배 받기에 합당한데 창조의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구속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경배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합당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경배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시 57:5).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입니다. 기도, 찬양, 말

씀, 설교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

예배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3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십계명이고, 모든 율법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사례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과 율법들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창조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심으로 생겨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들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과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목사의 말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높으신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 몸을 통해 태어나는 자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3면에 계속)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장애라는 벽 넘어



가족과 교사, 특별하고 고귀한 사랑을 만나다

사랑부라는 이름만 들어도 참 행복하다. 따뜻하고 포근하다. 얼마나 사랑이 많던지 부서 이름도 사랑이다.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특별하고 고귀한 사랑이다. 사랑부 지체들과 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의 사랑이 장애라는 벽을 넘어 천국을 노래하고 있다. 더불어 하나 되는 장애인주일에 만난 그들의 이야기가 꽃향기 보다 진하고 좋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모자이크플러스 활동을 하는 김사교 형제.

“내 아들은 우리 가정의 선교사”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수사랑부 김사교 형제의 부모 김성조 정해정 성도는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서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2007년 5월 9일, 아들 김사교 형제가 뇌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사고를 당했다. 머리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뇌에 손상을 입은 아들은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생명을 구했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자식의 장애는 견디기 어려웠다. 그 어려웠을 당시 어머니 정해정 성도에게는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었다. 그 동역자가 어머니를 전도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동역자가 눈물로 호소했다. “장애인이 된 아들을 통해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너무 서운했다. 다른 방법도 있을텐데 왜 하필 그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금쪽같은 내 자식에게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이 온누리교회 예수사랑부

에 출석하게 되었다. 매일이 힘이 들고 괴로웠는데 예수사랑부에서 만난 가족들이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난해 또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다. 아들이 또 사고를 당했다. 교회 앞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과거에 손상을 입었던 부위에 똑같은 상처를 입었다. 4개월이나 입원해야 했다. 또 다시 큰 시련이 찾아왔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천 사랑부에서 기쁨을 찾은 김창아 학생.

“예쁘고 귀한 딸 창아”

부천 사랑부 김창아는 초등학교 4학년이다. 창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생을 했다. 창아의 부모인 김광영, 이효순 성도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창아는 다운 증후군이였다. 태어난 지 2~3개월밖에 안된 아이가 심장수술을 했다. 부모가 매달릴 곳은 하나님 뿐이었다. 창아 어머니는 “그때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창아는 2014년 여름캠프부터 부천 온누리교회 사랑부에 출석하게 되었다. 사랑부에 다니던 다

른 가족들이 창아 가족을 초청했다. 당시 창아와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는 장애인을 위한 부서가 없었다. 창아는 예배시간에 찬양하고 율동을 할 수 없었다. 장애인 아동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몹시 이롭고 서운했다. 부천 사랑부는 달랐다. 그 부족함을 모두 채워줬다.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여름캠프에 초청되어 갔는데 창아가 그곳에서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온누리교회에 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었던 부분들이 채워졌어요. 창아가 행복해하면서 자유롭게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은 창아 부모에게 힘들겠다. 불쌍하다는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창아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창아를 통해 가족이 하나로 뭉칠 땀”이라고 고백한다. 창아를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하나님께서 창아를 통해 우리 가족이 오히려 설 수 있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부에서 행복한 전세호 교사.

천상 사랑부 교사 전세호

양재 사랑부 전세호 교사는 예배팀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그는 사랑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신난다. 사랑부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 아이들이 찬양 가사를 이해하고 있

는지, 마음을 알아듣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또 사랑부 아이들은 집중하기 어렵다. 무엇이든 일일이 가르쳐줘야 한다.

전세호 교사는 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랑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있는 자기를 발견한다고 말했다. 찬양을 하면서 가사 그대로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고 고백했다. 마음을 듣고 또 듣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런 모습이 부끄럽다고 했다. 하나님도 더 알려주시려는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부에 오기 전까지 스스로 이 아이들보다 나은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랑부 아이들과 지내면서 그 생각이 산산조각났다. 그가 아이들과 다른 것은 육체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것뿐이었다. 그 육체적 유익을 감사하지 못하고 죄 짓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다. 또 그는 사랑부에 섬기러 온 줄 알았다고 했다. 사랑부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사랑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베풀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생각과 정반대였다.

그는 사랑부를 섬기면서 세상은 사랑부 아이들을 장애인으로 구분 짓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이 절대 줄 수 없는 영적 깨달음을 사랑부 아이들을 통해 얻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사랑부 아이들을 보면 마음에 위로가 느껴졌다. 하나님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랑부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사랑부를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떠올라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자녀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양육한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 주일마다 피아노 다리에 턱을 괴고 연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종하가 변화된 모습,

천국을 노래하는 ‘사랑부’



아름답게 피아노를 연주하며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아의 모습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다.

그는 천상 사랑부 교사다. 하나님이 사랑부로 인도하신 축복의 통로가 분명했다. 다른 교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사랑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지윤 교사와 그녀가 아끼는 학생 승민이.

“아이들 보듬는 손으로 쓰임 받기를”

2014년 교사캐스팅 때였다. 서빙고 1부 예배에서 교사캐스팅을 위한 홍보영상이 상영되었다.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 로라 간호사가 등장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서빙고 사랑부 김지윤 교사는 당시 교사지원서를 들여다보며 펜을 들었다. 당시 예배만 드릴 뿐 등록교인이 아니었고, 중등임용고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기에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다.

“시험에 최종합격해도 매주 왔다 갔다 하며 섬기겠습니다.”

일주일 뒤 시험을 엉망으로 치렀다. 그때 특별 새벽예배와 사랑부 신입교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힐링 타임이었다. ‘은혜와 진리’를 주제로 진행된 특

별새벽기도회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시험실패와 내면에 있는 쓴 뿌리로 아파하는 그녀를 만져주셨다. 사랑부는 그녀가 다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일 년 동안 큰 힘을 주었다. 힘겨울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해줬다.

그녀는 사랑부에서 승민이를 만났다. 승민이를 통해서 그녀는 자신의 본 모습과 마주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특수교육에 무지한 내가 교사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무지가 이 아이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고 교만이 었다. 그녀가 승민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승민이가 그녀를 가르쳤다. 승민이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껏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만난 적은 처음이었다. 그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준 사람은 승민이가 유일했다. 말 그대로 승민이는 하나님의 대사였다. 그녀는 승민이를 보면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대사가 되고 싶었다. 하나님 나라 대사로 살아가고 싶어졌다. 입만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일 년 뒤 서울 지역에서 다시 시험을 치렀지만 떨어졌다. 그러나 시험 들지 않았다. 사랑부에서 승민이를 통해 만끽한 은혜 덕분이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셨다.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학교 근거리에서 주거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혀 예기치 못하게 마지막 남은 기도도 응답하셨다. 2016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지나가는 말로 했던 기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녀의 다짐이다.

“아이들을 보듬는 손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장애인부서 교사를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절실하다. 온누리교회 모든 장애인 부서에 서 동역자들을 찾고 있다. 모집 분야는 교사 및 봉사자, 기도후원자, 재정후원자, 재능기부자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지원분야와 지원부서(꿈사랑부, 사랑부, 예수사랑부, 누리사랑부, 사랑챔버, 모자이크플러스, 온사랑합창단)를 선택해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장애인 부서는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교생이 대상인 꿈사랑부부터 성인자체 장애인인 위한 예배공동체 누리사랑부까지 있다.

발달장애 청년들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미술, 음악, 체육, 현장학습 등을 하는 주중 프로그램 모자이크플러스도 있다. 모자이크플러스에서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섬겨 줄 교사를 찾고 있다. 일일봉사도 가능하다. 온사랑합창단은 발달장애인 청장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공동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와 토요일 오후 2시에 봉사해줄 교사를 찾고 있다.

■ 서빙고 온누리교회

꿈사랑부(미취학~초등 6학년)

주일 오전 9시 신관 302호

문의: 정계희 팀장(010-7727-8347)

사랑부(중고등학생 14~19세)

주일 오전 9시 콘서트홀

문의: 정윤현 팀장(010-5359-6002)

예수사랑부(청장년 20세 이상)

주일 오전 11시 20분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온사랑합창단

문의: 문소현 부장(010-8784-6635)

모자이크플러스

문의: 신수하 부장(010-3128-2332)

누리사랑부(성인 자체장애)

주일 오전 11시 콘서트홀

문의: 박모세 팀장(010-5358-3648)

■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부(장애 아동, 청소년 8~19세)

예배: 주일 오전 9시 비전홀B

문의: 전인진 팀장(010-8792-0602)

■ 부천 온누리교회

사랑부(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7~19세)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 경찬홀(2층)

문의: 이상태 팀장(010-4654-9525)

■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발달장애 미취학~20세 이상)

예배: 주일 오전 9시 사랑홀(10층)

문의: 강은아 팀장(010-3161-3928)

■ 장애인 오케스트라 ‘사랑챔버’

연습: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서빙고 시온홀

문의: 김명희 총무(010-3193-4991)

새사람사역팀을
소개합니다

재소자 섬기는 ‘새사람사역팀’

여주교도소에서 집중인성교육 및 신앙교육 실시

참 귀한 사역이 있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에 수용된 재소자들을 섬기는 새사람사역이다. 온누리교회 새사람사역팀은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쿼티(QT)와 일대일 제자양육, 집중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팀 이름대로 재소자들이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물심 양면 돕고 있다.

새사람사역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주소망교도소에서 ‘집중인성교육(AGAPE)’을 실시했다.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는 8주 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내적치유학교도 실시했다. 오는 5월 16일(목)부터는 BEE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새사람사역팀이 이번에 섬긴 재소자들은 50여 명이다. 재소자들은 온누리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 동안 신앙교육과 내적치유학교,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등을 했다. 새사람사역팀 뿐만 아니라 내적치유학교, 일대일사역팀, BEE KOREA가 연합해 섬겼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제자양육은 3회 이상 일대일 양육을 한 20여 명의 봉사자들이 맡았다.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출발해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치고 늦은 저녁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했다. 수고를 감수하고 기쁘게 섬겼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재소자 50명 중 절반은 종교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중 25%는 초신자였다. 남정진 장로(새사람사역팀)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재소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봉사자들의 극진한 섬김으로 순한 양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재소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이들의 중보기도 덕분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재소자 일대일 제자양육을 위해 헌신해준 봉사자들.

“함께 동역합니다”

류지영 장로는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인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교도소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류 장로는 숙제와 암기할 것이 많다고 불평하던 동반자들이 48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신의 간증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섬기면서 오히려 큰 은혜를 받은 류 장로는 다음번

새사람사역팀 사역에도 동참하기로 결단했다.

양육자로 함께 섬긴 박찬빈 장로도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양육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 박 장로는 “삶을 나누는 일대일 양육과정에서 동반자들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동반자들이 변화된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며 영광을 올려 드렸다.

온누리교회 새사람사역팀의 집중인성교육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올 하반기에 제9기 집중인성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재소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남정진 장로(010-7148-5891)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재소자 대상 일대일 동반자 간증

나도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여주소망교도소 000 형제

어느덧 일대일 제자양육 8번째 만남이다. 처음에는 아기처럼 떼쓰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곁으로 가고 있다. “이런 교육을 조금 더 빨리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나는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해결하려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참다운 교육을 받았다. 성경 필사를 매일 하면서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뜻도 제대로 몰랐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기 전까지 말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기억은 이곳에 나를 찾아온 양육자님을 만난 것이다. 그분께 받은 감동이 잊히지 않는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까지 오셨고, 참 교육을 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출소하면 나도 양육자님처럼 남을 돕는 봉사자가 되고 싶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겠다. 사회에 나가서 나의 삶을, 남아있는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다. 봉사정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믿는다. 남은 인생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은 교회를 짓는 일이다.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싶다.

■ 재소자 대상 일대일 양육자 간증



/ 문충실 장로

“영혼 구원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여주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일대일 성경공부는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긴장되고 신경이 쓰였다. 망설여지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재소자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나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고민이 많았지만 주변 장로님들과 아내의 권유고 마지못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막상 하고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재소자들을 대하고 보니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장로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섬기고 계셨다. 나는 세 사람을 양육했는데 모두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다. 한 형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또 다른 형제에게는 일대일 제자양육

을 시작한 지 4주쯤 지났을 때 겨자씨 믿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머지 한 형제는 말이 없었지만 묵묵히 배우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반응도 좋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너의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동반자 삼형제가 날이 갈수록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며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교회가 교도소 사역 전담기구를 만들어 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역하면 좋겠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이 가뻔하시지 않겠는가.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를
소개합니다

언어장벽 넘어 일대일로 세계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대일 양육자 77명 배출

지난 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뜻 깊은 수료예배를 드렸다. 지난해 9월부터 27주 동안 (약 7개월)의 대장정을 마친 '외국어 일대일사역자 학교' 수료예배였다. 100명이 신청해 77명이 수료했다.

일대일위원회는 그동안 '일대일로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외국인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해 왔다. 중간에 통역자를 두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언어의 한계로 소통과 나눔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절감한 일대일위원회는 원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수할 수 있는 양육자 배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수년간 준비하고 고심한 끝에 마침내 지난해 9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대일 사역자학교를 시작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신청자가 넘쳐났다.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도 강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한열 장로는 "27주라는 긴 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겨주고 따라와 줘서 고맙다. 오늘 수료식은 과정의 수료일 뿐 진짜 훈련은 이제부터"라면서 수료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원어민들을 상대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할 것을 권면했다.

일대일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9일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선교와 일대일'을 주제로 행사를 연다. 이번에 수료한 외국인 일대일 사역자들을 양육 현장에 파견하기 위해 앞서 각 선교현장에서 일대일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수료생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제자양육을 실시한 사례들을 듣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케냐, 안산M센터, 일본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한 사역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일대일위원회는 양재 캠퍼스에 일대일 대외사역팀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다언어 일대일양

육을 준비할 계획이다.

문의: 최선희 사역자 02-3215-351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역칼럼 이한열 장로(일대일위원회)

3000명의 외국어 일대일사육자를 세우자!

일대일양육본부의 대외사역팀장으로 십년 넘게 섬겼다. 그동안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지에 일대일 사역자를 적게는 8명, 많게는 30명 데리고 나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그들은 모두 일대일 제자양육의 대가들이다.

외국에서 하는 일대일 제자양육은 분명 열매가 많다. 그런데 그만큼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언어의 한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외국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때면 으레 통역이 붙는다. 일대일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삶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일주일마다 한 번 만나 성경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상담도, 일상의 고민들도 나눈다. 때로는 음악회도 가고 쇼핑도 한다. 그런데 둘 사이에 통역자가 있다. 물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동반자와 양육자가 통역자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보면 아쉬운 생각이 든다. 더욱 탄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대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8년 동안 구상했다. 여러 제약들이 많았다. 우선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았다. 물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는 인적 콘텐츠가 많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렇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과정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가 왜 필요한지, 일정 및 장소, 강사 섭외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온누리신문을 통해 소식을 알렸다.

캠퍼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광고를 냈다. 솔직히 걱정이 많았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할지. 27주라는 긴 교육과정과 쉽지 않은 수료기준을 감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염려가 되었다.

무엇을 열어보니 기대 이상이 있었다. 영어권 신청자는 초과될 정도로 많았다. 다음 기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할 정도로 많았다. 멀리 대전 캠퍼스에서도 문의가 왔다. "거리는 멀지만 저도 가도 될까요?"라며 문의했다. 어떤 사람들은 스펠프로 섬기면서라도 과정을 듣고 싶다고 했다. 그만큼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든 과정을 잘 따라준 훈련생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지만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러시아권, 몽골어, 네덜어, 인도네시아권 등 다른 언어문화권에서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올해 30주년을 맞는다. 나에게도 새로운 30년 비전이 있다. 그것은 바로 3000명의 외국어 일대일 사역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를 1년에 100명씩, 앞으로 30년 배출하면 3000명이 된다. 이 사람들이 온누리 구석구석, 세계 곳곳에 나아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있어 다행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자부심이며, 소망당어리"라고 말할 정도로 일대일 대외사역팀은 부르짖어 즉각 달려나갈 것이다.

■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수료 간증



나는 사직서를 냈다

/ 김윤경 성도(중국어부 수료)

북경 온누리교회에 다닐 때 중국인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 적이 있다. 중국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다. 다행히 나의 동반자는 동시통역사였다. 그녀의 배려로 우리는 영어로 일대일 성경공부를 했다. 돌아보면 나의 중국생활은 한인공동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변으로 확대되지 못해 아쉬웠다.

귀국 후, 온누리신문에서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다. 남편과 함께 곧바로 신청했다. 나는 직장일로 해외 출장이 잦았다. 초반부터 결석을 하게 되었다. 예배와 숙제도 만만치 않았다. 부담감은 커지고, 자신감은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설교를 듣고 큰 결단을 내렸다. 그날 주일설교는 각자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설교를 듣고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마음을 다잡고,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용기 내어 중국어예배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 참석한 예배였지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부를 과거에 유학생과 주재원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하셨는지를 말이다. 우리 부부에게 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게 하셨는지도 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드리는데 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형제자매들의 외로움과 아픔도 느껴졌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앞으로 외국어 일대일사역과 전도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는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한다.

청년들을 만나다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주일에 섬기는 ‘요셉공동체’

섬기고 또 섬기는 청년들 얼굴에 활짝 꽃이 피었다

요셉공동체(담당 양재경 목사)는 2000년 6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비전으로 태동했다. 청년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요셉공동체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유일하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요셉공동체 예배는 주일에 지역교회를 섬기는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충전소다. 지역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은 청년부 모임을 갖지 못한다. 영적인 공급을 받기보다 사역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 바로 그런 청년들을 위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요셉공동체 예배를 통해 충전받고 그 힘으로 개교회를 섬기라는 것이다. 요셉공동체에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들뿐 아니라 타교회 청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 요셉공동체는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요셉공동체는 매주일 ODO(One Day Outreach)를 실시하고 있다. 탈북민들을 위한 새터교회, 어린 이들을 위한 구세군후생원, 한국에 유학 온 외국 인유학생, 지적장애인을 섬기는 도란도란, 지적 장애인들이 자내고 있는 라파의 집, 서울대병원 교회가 바로 ODO 장소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섬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요셉공동체와 새터교회의 인연

새터민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새터민은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이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새터민들은 약 2만 8천여 명이다. 2014년도에만 1,396명의 새터민이 한국에 왔다. 힘겨운 북한 생활을 벗어나 남한으로 왔지만 새터민들의 삶은 녹록치 않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3년 발표한 탈북자 직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임금



요셉공동체와 새터교회 지체들이 안양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새터민 전체의 40.8%나 됐다. 북한에서보다 생활은 나아지긴 했지만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터민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새터교회가 있다.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다. 담임목사인 강철호 목사가 새터민이다. 강 목사는 감리교에서 목사인수 받은 1호 새터민 목사다. 현재 68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 성도의 80%가 새터민이다.

새터교회에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나타났다. 지난 12일 요셉공동체 ODO 장소는 바로 새터교회였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다. 요셉공동체가 새터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새터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박경태 형제 덕분이다. 새터교회에 청년들이 4명 있는데 박경태 형제와는

나이 차이가 꽤 났다. 그러다보니 또래와 나눔을 할 수 있는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싶었지만 주일에 새터교회를 섬겨야 했다.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청년부를 찾던 중 요셉공동체를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토요일마다 요셉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렸다. 자연스럽게 매주일 실시하고 있는 ODO도 알게 되었다.

“요셉공동체에서 새터교회를 섬겨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요셉공동체가 지난해 새터교회로 크리스마스 불레싱을 가면서 두 교회가 인연을 맺었다. 일회성 섬김으로 그치지 않고 새터교회를 정기적으로 섬기기로 했다.

새터교회 강철호 목사는 요셉공동체의 섬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서로 교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가 새터교회를 섬겨주고, 동행해주는 것이 정말 힘이 됩니다.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지난 12일 새터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도 먹었다.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새터교회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도 보냈다. 벚꽃이 만발한 안양천으로 나들이를 갔다. 안양천으로 가는 동안 새터교회 아이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요셉공동체와 새터교회 청년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부는 바람에 벚꽃 잎이 흩날릴 때마다 꽃잎을 잡으려 손을 뻗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청년들의 얼굴에도 활짝 꽃이 피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간증 임광혁 형제(요셉공동체 원도우협의회)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는 여러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마다 지역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작년 4월 요셉공동체로 첫 걸음을 했다. 친구의 소개로 시작된 ‘광화문 홀리스타예배’가 그 계기가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양재경 목사의 말씀 가운데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광화문 홀리스타에서 스태프로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홀리스타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요셉공동체가 궁금해졌다. 광화문 홀리스타는 대개 요셉공동체 지체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그들의 예배에 대한 사모와 열정은 충격적이었다.

요셉공동체 가족이 된지 벌써 일 년이 되었다. 요셉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사

실 젊은이들에게 토요일은 고단한 한 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하루다. 학업과 일과에 쫓겨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하루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포기하고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을 가득 채우고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이다.

찬양으로 문을 여는 토요일 요셉예배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청년예배다. 스스로 세운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말씀 앞에서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다. 소리 내어 기도하는 시간에 본당은 또 하나의 마가다락방이 된다. 성령께서 예배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준다. 옆에서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보게 된다. 매주 토요일은 기다려지는 회복과 감동의 시간이다. 요셉공동체의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다. 토

요일은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일에는 그 은혜를 ODO(One Day Outreach)에서 나누고 섬긴다. 요셉공동체에게 주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손짓이 되는 하루다. 나는 주일에는 오래전부터 다니는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다. 주일날 예배와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 하루 전 드리는 요셉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풍성함이 된다. 나는 요셉공동체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나를 잘 살펴주시고, 인도해주신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선물로 받은 마음을 다시 나누는 자리에 있다.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원도우협의회는 요셉공동체에 새롭게 오시는 새가족들을 안내하는 곳이다. 내가 요셉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요셉공동체에는 특별함이 있다

신앙의 선배를 만나다

“내 일신의 편안함보다 교인들이 먼저다”

온갖 핍박에도 무릎 꿇지 않은 이학봉 목사(1882~1950)

이학봉 목사는 평양신학교 17회 졸업생이다. 그는 평북 용천에서 목회하다 원산 광석동교회, 함흥 중앙교회를 거쳐 평양 남문밖교회에 서사역했다.

이학봉 목사가 설교하면 교회당이 찌렁찌렁 울릴 정도로 목소리가 크고 맑았다고 한다. 그는 평양에서 유일하게 수화를 할 줄 아는 목사였다. 그 이유로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는 청각 장애인들이 많았다.

이학봉 목사가 북한 기독교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46년 3월 1일 평양에서 발생한 3·1절 기념예배 사건 때부터다. 북한 공산당은 평양 교회들의 3·1절 기념행사를 금지시켰다. 그 대신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평양역전 집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평양교회들은 3·1운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교계의 기념예배를 취소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3·1절 기념예배는 유서 깊은 장대현교회에서 드렸다. 그런데 기념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참석자들이 연행됐다. 사회자 김길수 목사, 설교자 황은균 목사를 비롯해 김명길, 김인준, 김석원, 박대선, 이춘생, 이학봉 목사(평양노회장) 등이 연행되었다.

공산당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그해 11월 3일(주일)을 전국 면·군·시·도 인민위원회 위원선출을 위한 투표일로 정했다. 교회들은 일제히 주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핍박은 날로 심해지고, 노골적이었다.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목사의 설교도 감시했다.

이학봉 목사의 외손녀 김은경 교수(전 한양대 교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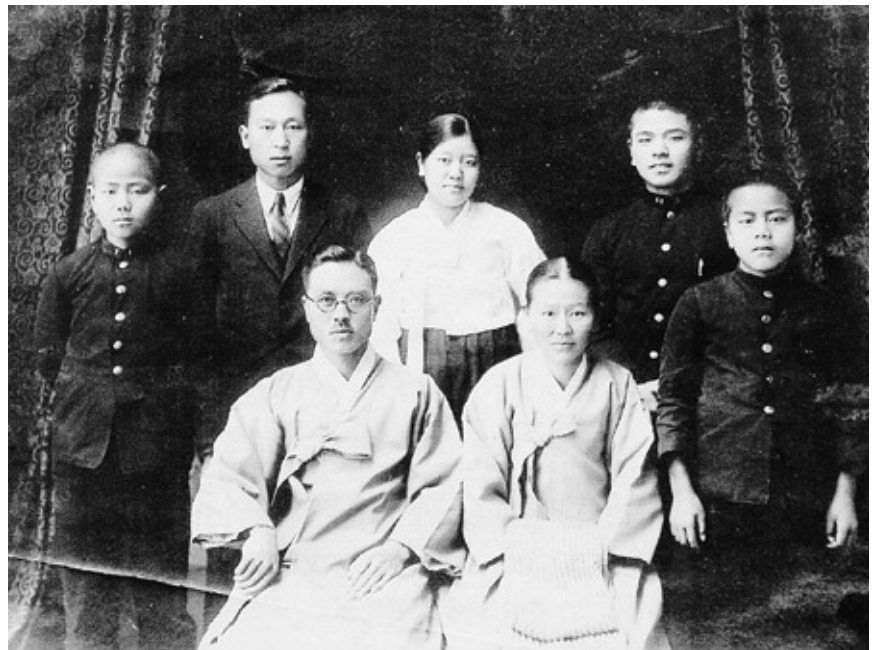
“1947년에 외할아버지가 시무하던 남문밖교회에는 비밀경찰들이 상존하며 설교를 감시했어요. 걸핏하면 외할아버지를 연행해 갔어요.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와 교인들은 길가에 나와 찬송가를 부르며 외할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이학봉 목사가 돌아오면 부인은 가장 먼저 두루마기의 옷고름을 달아줬다고 한다. 비밀경찰들이 이학봉 목사가 자살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포한 즉시 옷고름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이학봉 목사의 사위인 독립운동가 김찬도가 함께 월남할 것을 권유했으나 단박에 거절했다. 교인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이 목사 부부는 끝내 평양에 남을 것을 고집했다.

공산당조직인 평양기독교연맹은 목사들을 가입시키려던 계획과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학봉 목사가 시무하는 남문밖교회에 평양시



이학봉 목사 가족 사진. 뒷줄 시계방향으로 둘째 인근, 사위 김찬도, 딸 옥현, 장남 인범, 셋째 인형.

내 목사와 장로들을 모두 소집시켜 평양기독교연맹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남문밖교회는 1903년 장대현교회에서 분립한 교회다. 당시 이학봉 목사가 3대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공산당은 1949년에 기독교연맹 총회를 결성했다. 그 단체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조선그리스도연맹’의 전신이다. 연맹에 가입한 목사들과 반대하는 목회자

들이 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다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6월 18일 평양지역에서 사역하던 목사 14명이 비밀경찰에게 연행됐다. 이때 이학봉 목사도 같이 연행되었다. 그날 이후 이학봉 목사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1950년 10월 18일 저녁, 연행된 지 4달 만에 대동강변에서 처형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결혼은 결론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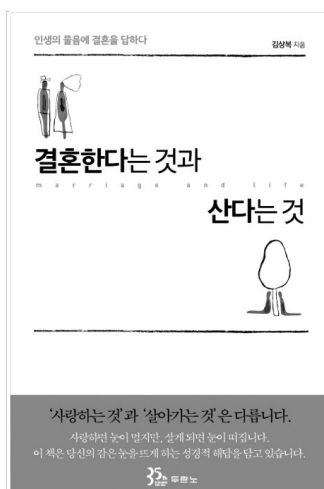
〈결혼한다는 것과 산다는 것〉
김상복 저 | 두란노 | 12,000원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었는데, 결혼해도 관장을 까요?”

“사랑하지만 결혼할 자신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결혼에 대한 인생의 물음에 김상복 교수가 답을 했다. “결혼은 결론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 중 하나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히 알 때, 당신의 결혼생활이 감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자는 그동안 자신에게 결혼식 주례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수많은 젊은이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책을 썼다. 결혼이라는 장벽 앞에 찢찢대는 이들에게 결혼과 인생에 대한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 부부, 가정 사역자,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저자는 결혼에 대해 단연코 말한다. 결혼을 사랑의 결론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결혼의 본래 의미와 부부의 역할을 재조명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만들어가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미생(未生)에서 미생(美生)으로!

〈내 삶에 찾아온 열 번째 기적〉
홍성욱 저 | 두란노 | 12,000원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7가지 기적이 나온다. 이 책은 7가지 기적에 십자가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을 더해 9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열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다.

책은 총 3부다. 1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혼인잔치의 기적, 가버나움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부는 예수님의 기적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한 위선자, 바리새인들, 빌라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3부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을 말하며 열 번째 기적을 맛보기를 선포하고 있다.

하루하루 미생(未生)의 삶을 사느라 지친 크리스천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미생(未生)을 미생(美生)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생 선배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자. 무기력한 일상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열 번째 기적이다.





지난 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장.

“교회의 이런 노력을 환영한다”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에 지역사회 칭찬 자자
사회선교 사역박람회에 4,408명 다녀가

지난 4월 12일 실시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온누리교회의 성숙함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주일 실시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에 대한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칭찬이 자자하다. 6211 버스기사 최재선 씨는 “교회의 이러한 노력을 환영한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김응호 씨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도 있냐”고 물었다. 교회가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성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었다면서 한 말이다. 아이들도 신이 났다. 모처럼 교회 앞마당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어른들도 오랜만에 주차 걱정 없이 성도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어 좋았으며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날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사회선교 사역박람회의 호응도 뜨거웠다. 20여 개 사

회선교 부스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안내부스가 설치되었는데 약 4408명의 성도들이 방문했다.

이날 마련된 부스에서는 사회선교의 필요성과 유익, 구체적인 실천방법 소개,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소개, 공동체 여름 아웃리치 정보 등을 제공했다. 순식간에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부했다.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선교본부는 5월은 ‘환경을 생각하는 달’로 정했다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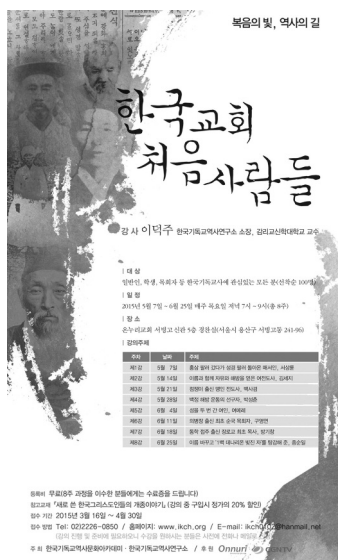
5월 7일 개강,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한국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주최로 한국기독교 교역 강좌가 열린다.

이번 강좌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8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5층 경천홀에서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을 주제로 열린다. 강의는 이덕주 소장(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이 한다.

이번 강좌에는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일반인, 학생, 목회자 등 한국기독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등록비는 없다. 8주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준다. 참가신청은 전화(02-2226-0850) 또는 이메일(kkch0102@hanmail.net)로 받는다.

강의주제는 ▷홍삼 팔러 갔다가 성경 팔러 돌아온 매서인, 서상훈 ▷이름과 함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여전도사, 김세지 ▷점쟁이 출신 맹인 전도사, 백사겸 ▷백정 해방 운동의 선구자, 박성



춘 ▷성을 두 번 간 여인, 여매래 ▷의 병장 출신 최초 순국 목회자, 구영연 ▷동학잡주 출신 장로교 최초 목사, 방기창 ▷이름 바꾸고 ‘1백 데나리온 빛진자’를 탐감해 준 종순일이다.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 보내기

어린이날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 보내기를 실시한다.

2천선교본부는 성도들에게 “각 공동체별로 결연된 선교사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보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보낼 선물은 학용품(그래프스, 공책, 싸인펜 등), 장남감, 책(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등이 좋다. 보안지 역으로 선물을 보내고 싶은 성도는 선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내는 것이 좋다.

문의: 02-3215-3208

mcs3040@gmail.com

/ 김현준 기자

기증할수록 일자리가 생긴다

오늘부터 26일까지 ‘굿월스토어’ 기증 행사

4월 장애인인의 달을 맞아 온누리교회와 굿월스토어가 함께 기증 행사를 한다. 오늘(19일)부터 다음 주일(26일)까지 성도들의 기증품을 받는다. 입지 않는 의류와 집화, 주방용품, 아동용품, 취미용품, 생활용품, 소형가구, 가전제품 등을 기증하면 된다. 손상되거나 오래된 것, 고장난 가전은 받지 않는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는 기증함이 설치되었고, 양재 온누리교회는 두란노서점 앞에서 기증을 받는다. 기증품을

가져오면 굿월스토어 리플렛, 자석, 기증봉투, 기증품 인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굿월스토어는 미국에서 1902년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을 돕는 활동을 펼쳐며 시작됐다. 한국 굿월스토어는 기증품 판매수익을 통해 장애인과 소외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증하면 기증할수록 일자리가 창출된다.

문의: 02-6910-9191

/ 정지은 기자



청파 개관 6주년 및 준공 감사예배.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청파노인복지센터 개관 6주년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청파노인복지센터가 개관 6주년 및 1층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6일 청파노인복지센터 1층 강당에서 드린 개관 6주년 및 1층 준공 감사예배에는 어르신들과 온누리교회, 온누리복지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한 양재수 장로는 “청파노인복지센터가 다른 복지관의 모범이 되는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설교는 서재범 목사가 했다. 서 목사는 “너는 내 것이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했다.

이국현 센터장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경로당이 있던 1층 공간이 확 달라졌다. 강당과 물리치료실, 로비가 새로 만들어졌다. 청파노인복지센터에는 1,767명의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있다. 하루 평균 25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방송 세미나 열린다

양재 방송실에서 방송 세미나를 연다. 주제는 ‘음향장비 100% 활용하기’와 ‘예배에서 실제로 활용하기’다. 이번 세미나는 사역자와 음향봉사자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13시에서 열린다.

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강사는 양재 방송실 음향팀 김동호 감독 등이 맡는다. 수강료는 8만원이다.

문의: 02-570-7116

010-2765-0569

장·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훈련생을 모집한다. 분야는 단기선교사(Turning Point 27기)와 장기선교사(OSOM 25기)다. 참가신청은 5월 16일까지 홈페이지(www.visionvillage.org)에서 하면 된다.

단기 선교사 훈련은 6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고, 장기 선교사 훈련은 8월 3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다. 모두 합숙훈련이다.

문의: 031-331-8182

제1045호 | 2015년 4월 19일(주일)

■ 러브소나타 교토 참가자 간증



/ 서승옥 권사

역시 러브소나타는 진정한 울림이다

러브소나타 교토에 참석했다. 출발 당일 아침 공항에서 함께 갈 팀을 찾았다. 팀장님과 가이드가 출석확인을 하면서 출국 수속을 각자 하라고 했다. 혼자 수속을 해야 한다니 난감했다. 마침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와 30대 청년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저들과 같이 하면 되겠다 싶어 말을 걸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다. “저는 안 가고 아버지만 가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라고 했다. 아들이 여행 겸 러브소나타에 보내드리는 것이었다. 청년한테 도움을 받으려다가 그 청년의 아버지를 인도하게 되었다.

호텔에 도착했다. 방 배정을 받으며 ‘두 명이 한 방을 쓰면 룸메이트가 그 분을 챙기겠지’라고 생각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1인 1실이었다. 어쩔 수 없이 아침 식사 때도, 어디에 갈 때도 나는 그 분과 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분은 교토가 처음이고, 교회 행사에 참석한 것은 당연히 처음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낯설고 어색할까 싶었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문득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낯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씩씩하게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걸로 어른이고, 관찰아 보여도 속은 그럴지 않다. 내가 공항에서 짝꿍매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했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럴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으로 올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한다니 거북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일본인들 중에서도 가장 일본스러운 특성을 가진 교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더 따뜻하고, 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드디어 행사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비와코홀에 갔다. 초청된 분들에게 드릴 선물 박스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흥분이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분홍색 박스를 접고 또 접었다. 화관과 결신카드, 종이비행기도 넣었다. 출발 때부터 함께 했던 그 분도 내 옆에서 열심히 박스를 접었다. 드디어 사람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로비에 서서 미소를 가득 머금은 얼굴로 “아이시마쓰(사랑합니다)”, “슈쿠후쿠시마쓰(축복합니다)”를 외쳤다.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별실에서 보며 중보기도를 했다. 여느 러브소나타 행사보다 더 큰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첫날 어색해하던 그 분도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우리 팀에 동화되었다.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대구로 돌아가면 꼭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한 팀원이 자기가 보던 <생명의 삶>을 선물했다. 그 분처럼 비와코홀에 모였던 일본인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역시 러브소나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울림이다.

■ 군선교 공군사관학교 전도집회 후기



/ 김호성 성도

내가 부끄러워했던 말씀이 영혼을 깨웠다

지난 8일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기 전 몇 가지 염려가 있었다. 하나는 평일에 전도집회를 참석하려니 직장일이 부담스러웠고 또 다른 하나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 줄지가 궁금했다. 집회준비를 잘 하지 못 한 것 같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다.

버스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는 무렵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가는 길이라면 주님이 일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공군사관학교에 도착해 군종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전도집회가 어려울 수 있는 조건 몇 가지를 발견했다. 생도들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 두 시간 남짓한 자유 시간을 쪼개 전도집회에 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거기다 특급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체력검정이 겹쳐 생도들의 참석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이번 전도집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집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질 무렵, 예상 보다 많은 생도들이 예배당을 채우기 시작했다. 예배당에 있

는 생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남자와 똑같은 강도의 비행훈련을 마치고 도착한 여생도들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다. 찬양과 말씀이 이어질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엿보였다. 우리를 공군사관학교로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특히 ‘세 가지 진리’를 주제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한 잠과 고된 훈련으로 지쳐있던 생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진지함과 생기가 살아났다.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자신 있게 내세우는 것이 어려웠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영혼을 깨운 것은 내가 때때로 부끄러워했던 말씀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다. 인간적 기준으로 미리 짐작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염려했던 내 모습을 회개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 믿음을 선택하는 기회였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섬기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 수료 간증



/ 조원경 성도(이수공동체)

일대일이 내 삶을 바꿨다

내게 일대일 양육은 굉장히 버겁게 느껴졌다.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와 신앙과 삶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나의 얕은 지식이나 믿음이 누군가에게 탄로 나는 것이 두려웠다.

양육자님을 처음 만난 날. 양육자님은 나에게 사전만큼이나 두껍게 느껴지는 교재와 책갈피를 선물로 주셨다. 예쁜 천사가 웃고 있는 책갈피는 마음에 들었다. 양육자님께 감사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런데... 속제는 왜 그렇게 많고, 암송 구절은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지.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말씀 외울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머리가 멈춰버린 기분으로 양육자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다.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참 하나님인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졌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부활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배우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쁨을 알게 됐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만큼 믿음이 연약했던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아멘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을 깨달았다. 일대일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과정을 배우면서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개념들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큐티가 인상적이었다. 큐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는 것은 힘들었다. 듣고 넘기기를 반복하던 내게 양육자님이 묵상한 내용이나 새벽기도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40일 새벽기도 기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신 양육자님 내외분을 보며 은혜 받은 것이 사실이다. 온 가족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큐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매주 일대일 양육을 받기 위해 억지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는 시간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슬퍼하고, 걱정하는 날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다. 일대일 양육을 받고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은 누구보다 즐거웠다. 이리 저리 흔들리는 나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양육자님 덕분에 일대일 양육을 받는 기간이 마냥 행복했다. 처음에 했던 걱정과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나도 양육자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온누리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 막연히 시작했던 일대일 양육이 내 삶을 바꿨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 CGNTV 선교현신자 간증



/ 오성환 팀장(CGNTV 후원기획실 후원영상팀)

낮선 곳 더 낮선 곳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선교 현신자이다. 나는 첫 번째 선교현신자 지원에서 보기 좋게 고배를 마셨다.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올해 선교현신자 공고를 보고 다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삶에서 선교가 어떤 의미 인지를 되새겼다. 나는 얼마나 준비 되었는지 를 질문했다.

나는 CGNTV에서 근무한 8년 동안 38개국을 다녔다. 200명의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다. 입사 전에는 비행기를 딱 한번 타봤던 내게 CGNTV는 그야말로 글로벌을 원 없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곳이었다.

방송으로 담아낸 선교사들의 삶은 한마디로 은혜였다. 카메라가 꺼진 후 들었던 선교사님의 솔직한 고백 속에는 가족의 아픔이 있었고, 처절하리만큼 몸부림치며 살아온 눈물의 씨앗도 있었다. 잠시 머물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 곳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떨까. 선교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순간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지원서를 써내려갔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라는 말씀을 보는데 선교를 위해 온전히 내려놓

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상한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낮은 곳을 넘어 ‘낮선 곳 더 낮선 곳으로’ 보내달라는 간구를 하게 되었다.

선교를 결심한 지금도 내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변명이 있다. 믿음의 1세대로 아직 전도 하지 못한 부모님이 걸리고, 아제 갓 100일 지난 아들과 아내가 낯선 땅을 밟을 생각을 하면 주저하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가족의 구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분의 시간 안에 있다고 믿는다.

중남미는 2009년 미주 CGNTV에 파견근무를 하며 마음에 품었다. 개국 5주년 다큐제작을 위해 도미니카와 아이티 위성신학교시역을 촬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었다. 목사님이 들어갈 수 없는 교도소에 CGNTV가 들어가 1급 살인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정규 신학과정도 받지 않고 가짜 목사를 만드는 마을에서 CGNTV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CGNTV가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첫걸음을 떼고 싶다. 중남미 땅을 넘어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몸소 느끼고 간증하고 싶다.



장로칼럼 정진호 장로(사회선교부 담당)

“한국에 이런 교회도 있군요”

지난 4월 12일은 이웃을 위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한 불편함(Loving U)’을 실천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성도들이 적극 동참하였다. 그 덕에 이웃과 지역사회가 모처럼 교통체증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행복한 불편함을 몸소 실천한 성도들이 자랑스러웠다. 성도들의 순종과 성숙함에 캠페인을 준비하며 쌓인 피로가 모두 풀렸다.

지난 주일 온누리교회 주변이 평소와 다르게 적막했다. 성도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왔다. 이날따라 본당에 울려 퍼지는 찬양소리가 더 은혜로웠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였다. 평소 가장 붐비는 2부 예배시간에도 교회 주차장이 텅텅 비었다. 이날 택시기사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커피를 마시며 신기하다고 했다. “한국에 이런 교회도 있군요”라고 말했다. 차도 안 막히고 택시 승객이 많아 참 좋다고도 했다. 주민들도 온누리교회의 성숙함에 감사와 찬사를 보냈다. 성도들도 신이 났다. 교회 마당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공동체별로 사진도 찍었다.

이날 만난 택시기사 김응호씨는 이렇게 고백했다. “집사람이 안수집사지만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온누리교회를 보니 제 생각이 선입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그동안 Acts 29 비전을 통해 선

교하는 교회로 충성되게 달려왔다.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도 중요한 선교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웃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선교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는 지난해 출범했다. 사회선교는 정치함이 없는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행복한 불편함 ‘Loving U’는 사회선교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캠페인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선교운동이다. 사회선교부는 타 부서와 협력사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도 주차사역팀과 긴밀한 협력 가운데 이루어졌다. CEO포럼과 협력해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위한 ‘러빙유 청년 벤처대회’도 준비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은 사회선교부의 첫걸음일 뿐이다. 같은 날 서빙고와 양재광장에서 열린 사회선교 박람회에도 많은 공동체 지체들이 참여했다. 순식구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부했다.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도한다.

5월은 ‘환경을 생각하는 달’로 정했다. 모든 성도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권사칼럼 문장혜 권사(강서공동체)

온누리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지난 4월 12일은 놀람 그 자체였다. 우리 교회 역사상 차 없는 날을 경험하게 될 줄이야! 천국에서 하용호 목사님도 감탄하지 않았을까?

4월 12일을 차 없는 날로 공표하고 전교인에게 승용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해냈다.

나는 온누리교회가 영똥한 교회라고 생각한 일이 종종 있었다. 1997년 무렵 온누리사역축제에 할 때였다. 온누리 사역축제가 열리는 전날까지 신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난장판이었다.

교회 마당에는 건축 자재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와 시멘트가 루가 휘날려 몹시 어수선했던 상태였다. 축제가 가능할까 반신반의 했다. 손님을 초대하기 전 성도들이 힘을 합쳐 쓸고 닦았다. 그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 깔끔하게 단장해 있었다. 거뜬히 행사를 치렀다. 그때 참으로 놀랐다.

이번에도 깜짝 놀랐다. 아침에 버스를 타고 교회 부근에 도착했다. 승용차로 뒤범벅이던 도로가 한산했다. 교회 부근과 앞마당에는 울창한 황토담색 택시가 초가지붕마냥들락거렸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차 없는 날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는 자는 산다’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의 편함과 이기심을 붙잡으면 죽음으로 가고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교훈을 실제로 경험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동일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슴속에 쑥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동안 교회에 올 때마다 과연 주차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를 빼주기 위해 하급지급 쫓기듯 집으로 가곤 했다. 이런 나날이 반복되면서 성도와의 교제 없는 신앙생활이 서글웠다. 주차난으로 매주 탈진하는 주차담당 봉사자들 도 안쓰러웠다.

매연 냄새도 없으니 아이들의 모습도 밝다. 주차문제로 답답했던 체증을 날려버린 오늘 내가 온누리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한 달에 한번이든 분기별이든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 우리가 실천한 이 모습이 주차난으로 허덕이는 다른 교회에도 좋은 영향력이 될 것이다.



신앙에세이 안광국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영혼의 바이탈 사인(Vital Signs)

바이탈 사인이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살아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혈압, 체온, 맥박, 호흡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살아있다고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체온이나 호흡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반대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호흡이나 맥박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바이탈 사인은 살아있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광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요한계시록 3:1).

사데교회는 사도 바울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시아의 7개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였다. 역사적으로 사데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다. 염직공업과 양털 염색, 금모래 등이 유명해 사치와 부의 상징이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죽었다’라고 사망선고를 내리셨다. 영적인 바이탈 사인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교인이 있습니다”라고 사데교회는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바이탈 사인이 아니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바이탈 사인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가지

고 있었다. 선포되는 말씀인 ‘케리그마(kerygma)’, 이웃을 향한 봉사인 ‘디아코니아(diakonia)’, 성도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koinonia)’, 양육을 의미하는 ‘디다케(didake)’다. 이 네 가지는 마치 호흡, 체온, 맥박, 혈압처럼 교회의 영적인 바이탈 사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상한 것 중 하나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왕성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던 초대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영적인 바이탈 사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냥 선포된 말씀만 있었을 뿐 증거된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전도를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이 곧바로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듣는 것과 전하는 것이 하나였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처럼 선교나 전도를 일부터 강조해야 하는 신앙이 아닌, 듣는 말씀은 곧 증거해야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삶 자체가 전도였기 때문에 굳이 전도를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기독교 영성사>라는 책에서 브레들리 홀트 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한다”며 우리의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신앙의 병든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어느 날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큐티하다가 벳세다에서 한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 고치시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다. 예

수님은 눈먼 사람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이렇게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말한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는 것은 이제 막 시력이 회복되어 눈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지만, 나에게서는 마치 ‘사람들이 너무나 생명력 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마치 나무 막대기와도 같습니다’라는 말처럼 들렸다.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나의 생명력 없는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봄이 되어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이 계절이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나무와 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은 듯 보였으나 결코 죽은 것이 아님을 묵상하는 계절이다. 더불어 나 자신에게 “살아있는가?”라고 물어본다. 내 인생의 나무에도 새싹이 계속 돋아나고 있는지, 꽃이 피고 있는지 묵상해본다. 내 신앙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살아있음을 증명할 것인가? 목사로서 말씀도 선포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양육도 하지만, 마른 막대기처럼 생명력 없이 분주히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켜 본다. 오늘날과 죽음같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길가에 꽃을 피워낸 들꽃의 생명력이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진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나님을 본 사람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할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배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5-8절).

그 피의 절반을 먼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 절반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행동은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약속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어겨도 되는 약속이 있고,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가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약 언약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가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혈로 덮어줘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제단에 먼저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희생하는 피입니다. 제단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희생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이루는 분이요, 말씀하시는대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과 언약은 그것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사랑은 먼저 희생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의 불의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먼저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언약에 대한 대가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를 이미 치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뒤로 돌아가서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의 피로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에게 뿌려 주십시오. 그 피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피가 나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9-11절).

피 뿌림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악 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경배 받으실 분이요, 여전히 엄위하신 분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친밀하시고 가까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예배의 길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5 : 솔로몬의 성전 2 - 세상의 중심에서 땅끝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주보다 광대하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에스겔 38:12은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앙’이라고 번역한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부르 하이레츠’는 ‘땅의 배꼽’이란 뜻이다. 배꼽이 사람 몸의 한 가운데 있듯,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은 세상의 배꼽, 즉 세상의 중심이란 말이다.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 역시 세상의 중심지로 우뚝 솟게 된다.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여부스 족속이 거하던 작은 성에 불과했던 시온에 있는 작은 산이 세상의 중심이 됐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온 산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이다(시 78:68). 당신의 눈에는 어디가 세상의 중심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변방의 작은 산도 우주의 산이 된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던 예루살렘(성전)을 벗어나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사도행전은 ‘탈(脫) 예루살렘기’다. 일본 영화감독 유키사다 이사오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라고 말씀하신다. 이 지엄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박해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땅 끝으로 보내신다(행 8:1).

누가 사도행전에서 탈예루살렘을 외쳤다면, 바울은 ‘성전은

곧 성도’라고 말한다. 예수 믿어 성령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고전 3:16).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고전 6:19). 그래서 우리는 음란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고전 6:20).

성경의 파달레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전이 있지 않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계 21:22)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당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는 곳, 그곳이 신천지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완성이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하이라이트는 성전봉헌식이다. 7년 6개월만에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성전봉헌식’을 진행한다. 백미는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이었다. 언약궤 안에는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두 개가 들어있다.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지만, 이제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시내산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산이 된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전봉헌식 후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그러면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노라고. 그

러나 만일 너와 네 자손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왕상 9:7).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도와 심판으로 얼룩졌다. 성전은 파괴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의 주도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이후 헤롯 왕이 증축하여 웅장한 건물로 다시 그 위용을 자랑했지만, 주후 70년, 성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성전 지성소의 언약궤를 잊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일러주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약 1000년 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느 날 이름 모를 어느 산에 올라 진리를 설파하신다. 마태는 그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고스란히 담아 우리에게 전한다. 바로 산상수훈, 즉 ‘산 위에서 배푸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 다시 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당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부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산상수훈을 곱씹고 가르쳐 지키는 교회만이 진정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다.